

2014년 12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솔' 이라고 외쳐라
母に会いたいなら'松'と叫べ

1864년 1월7일,
1864年1月7日

외가에서 태어난 서재필은
母の実家で生まれた徐載弼は

일곱 살 때 7촌 아저씨인 서광하 닥의
7歳の時、7親等のソ・グワンハ宅の

양자로 들어간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養子に入る。母は、幼い息子の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말했다.
手を握り涙をなみなみと流しながら言った

"어미가 보고 싶으면 소나무를 쳐다보며
"母に会いたいなら、松の木を眺めて

'솔!' 이라고 외쳐라. 이 어미는 천리만리
'松!' と叫べ。この母は、千里万里

떨어져 있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
離れていても、その声を聴くことができる"

"솔..."
"松..."

서재필은 마음이 편해지면서
徐載弼は心が楽になり

몸에 뜨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体に熱い氣運が漂った

- 고승철의 《소설 서재필》 중에서 -
- コ・スン Chol의〈小説 徐載弼〉より -

* 내 어머니를
* 私の母を

내 어머니라 부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私の母と呼ぶことができないこともあります

내 조국을 내 조국이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私の祖国を私の祖国と言えないこともあります

그래서 은유와 암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だから、隠喩と暗号が必要です。愛すれば

은유와 암호만으로 통합니다.
隠喩と暗号で通じます

'솔!' 단 한 마디만으로도
'松!' ただ一言だけでも

모든 것이 통합니다.
全てのことが通じます

외가 (外家)

[명사] 外家; 母の里[実家]. (=외갓집)

7촌7親等

養子に入る 발음 재생 (표제어: ようし)

양자로 들어가다

철철

[부사] 水などの満ちあふれるさま: どくどく(と); なみなみ(と). [작은말] 찰...

소나무

[명사] [←솔나무] [식물] マツ(松); マツの木; 赤松.

어미

[명사]

'어머니(=母)'의 卑称: おふくろ.

子を産んだ動物の雌.

親が, 結婚して子を持っている娘を指す語.

편하다 (便—)

[형용사]

樂だ.

安らかだ.

心配がない; 氣樂だ.

감돌다

[자동사]

(ある考えなどが) ちらつく.

(香りや雰囲気などが) 漂よう.

[타동사] (川の水などが) 大きく緩やかに回る; ゆったり(大(お...

은유 (隱喩)

[명사] 隱喩; 暗喩; メタファー. (=은유법)

2014년 12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
選択より、さらに重要なこと

좋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いい選択だといっても

광일 때도 있고, 나쁜 선택이었는데
虚しく日を過ごすこともあり、悪い選択だったが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때도 있다.
自分に幸運を持ってきてくれることもある

새옹지마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는지 모른다.
塞翁が馬という言葉が、だから出たのかもしれない

어떤 선택에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どんな選択も、学ぶことがあるという考えなら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에 대한
選択より、さらに重要なことが選択に対する

책임이다.
責任だ

- 하명희의 《따뜻하게, 다정하게, 가까이》 중에서 -
- ハ・ミョンヒの〈温かく、優しく、近く〉より -

*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 人生は選択の連続です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瞬間瞬間どんな選択をするかによって

인생의 진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선택을
人生の進路が変わります。しかし選択を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した次に、どうするかがさらに重要です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自分が自ら選択したことに対して、無限の責任を

지는 마음, 그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とれる心、その心が実践につながるとき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빛이 납니다.
ようやく自分の選択が輝きます

다음 선택도 더 좋아집니다.
次の選択もよくなります。

광일 (曠日)
[명사]曠日; 何もしないでむなしく日を過ごすこと.

20141230.txt

다정 (多情)

[명사]

多情.

思いやりがあり, 優しいこと.

親しいこと.

2014년 12월 31일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皆さん、我々一緒に幸せになりましょう！

이 세상은
この世の中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듭니다.
我々一人一人が作ります

한 사람의 행복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一人の幸せが、幸せな世の中を作り

한 사람의 불행이 비참한 세상을 만듭니다.
一人の不幸が、悲惨な世の中を作ります

지금 지구는 고통을 뿌리는 사람이 많아
今地球は苦痛をふりまく人が多く

재난이 많은 것입니다. 저절로 기쁨과
災難が多いのです。自然に喜びと

행복을 뿌리는 사람이 되세요.
幸せをふりまく人になってください

여러분, 우리 함께
皆さん、我々一緒に

행복합시다.
幸せになりましょう！

- 송희의 《사랑한다 아가야!》 중에서 -
- ソンヒの<愛してる、坊や!>より -

* 2014년 12월31일.
* 2014年12月31日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一年が終わる、最後の日です

해마다 그렇듯,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毎年のように、とても多事多難な1年です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 행복도 불행도 함께 했던
一緒に笑って、泣いた時間。幸せも不幸も一緒にした

시간들을 이제 뒤로 돌리고, 새해는 우리 모두
時間を、これからは後回しにして、新年を我々皆

함께 행복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一緒に幸せになったら、本当に良いですね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더욱 많이
喜びと幸せの種が、さらに多く

20141231.txt

뿌러졌으면 좋겠습니다.
まかれたら良いです

저절로

[부사] 自然(に・と); おのずと; おのずから; ひとりでに. [준말] 절로.

坊야 발음 재생 (표제어:ぼう)

아가

後に回す[後回しにする] 발음 재생 (표제어:뒤)

뒤로 돌리다[미루다]

2015년 1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あなたがいるから

사람들은
人々は

나에게 말했다.
私に行った

'왜 그리도 위험하고
'なぜそう危険で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辛い道をいこうとするのか'と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その時、心の中でこのように言ったりした

'좀 힘든 길을 가면 어떠냐'고. '가다가
'ちょっと辛い道を行けばどうか'と'行って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돌아오면
辛く到底だめなら、その時帰れば

되지 않느냐'고. '떠나보지 않고 어떻게 알
いいのではないかと、'発たずにそうして

수 있느냐'고. 세상에서 진정 중요하고
わかるのか'と、世の中で本当に重要で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몸소 느껴 보고
大切なことが何なのか、自ら感じてみた

싶었다. 결코 지워지지 않을
かった。決して消せない

그 무엇인가를 함께 하고
そのなにかを一緒にした

싶었다.
かった

- 이규초의 《애들아, 세상 밖으로 나가거라》중에서 -
- イ・ギュチョの〈我が子よ、世の中の外に出ろ〉より -

* 지금까지 온 길을 되돌아보면
* 今まで来た道を振り返れば

그 힘든 길을 어찌 걸었나 싶습니다.
そのつらい道を、どうして歩いたろうかと思えます。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 그 험한 길을
前に行く道を考えれば、その険しい道を

어찌 걸어갈지 멀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どう歩くか、遠くはるかに思うだけです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기
しかし心配はありません。あなたが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いるからです。あなたがいるから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ここまで来ることができました

당신이 함께 하기 때문에
あなたが一緒にしてくれたから

더 갈 수 있습니다.
さらに行くことができます。

도저히 (到底—)
[부사] (否定する言葉と共に用いて) 到底; とても; ...
몸소
[부사] 自ら; 親しく; 身自ら; じきじきに.
험하다 (險—)
[형용사]
険しい.
(地形が) 険阻だ.
(顔つきや形勢などが) 険悪だ.
아득하다
[형용사]
遙かだ.
(멀다) (距離・時間的に) はてしなく遠い.
(막막하다) 漠然とする; めどが付かない.

2015년 1월 2일 오늘의 아침편지

나이를 잊어라
歳を忘れろ

천재는
天才は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1パーセントの靈感と99パーセントの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너무 좋아
努力で至るとい言葉がとても好きで

나는 평생의 길잡이로 삼아왔다. 영혼을 담아
私は一生の道しるべとしてきた。靈魂をため

치열하게 노력하길 바란다. 괴테의 말처럼
熾烈に努力してほしい。ゲーテの言葉のように

80세가 돼도 소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80歳になっても少年の心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

90세를 넘긴 작가라도 작품에선
90歳を超えた作家でも作品では

나이를 알 수 없도록
歳が分からないように

해야 한다.
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조정래의 《시선》 중에서 -
- チョ・ジョンレの〈視線〉より -

*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 '歳を逆に取る!'

좋은 덕담, 좋은 칭찬의 말입니다.
いい徳談、いい称賛の言葉です

한 해 한 해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길이
一年一年、歳を取ることは、防ぐ道が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따로 가야 합니다.
ありません。しかし心は別に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마음은 젊어지고 생각은 더 젊어져야 합니다.
心は若くなって、考えはさらに若く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소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청년의 기백으로
少年の心で世の中を見て、青年の気概で

세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이를 잊어야
世の中を歩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歳を忘れて

꿈도 눈빛도 더 형형해집니다.
夢も、まなざしもひかります。

몸도 젊어집니다.
体も若くなります

천재 (天才)
[명사] 天才.
길잡이
[명사]
道しるべ; 道標; 手引き; 指針.
道案内(人). (=길라잡이)
삼다1
[타동사]
…[にする].
(관계를 맺다) (關係を) 結ぶ[持つ]; 迎える.
(緣を) 組む.
덕담 (德談)
[명사] 主に正月に交わすしあわせや成功を祈る言...
기백 (氣魄)
[명사] 氣迫; 氣概.
형형하다 (炯炯—)
[형용사] 炯炯としている; ぴかぴかと光っている.

2015년 1월 3일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무경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ムギョ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이발소 의자
理髪店の椅子

세상에서
世の中で

가장 편안한 자리
一番平安な場所

이발소 의자
理髪店の椅子

싹둑 싹둑 머리 자르는 가위 소리에
チヨキチヨキと髪を切るハサミの音に

샤르르 눈이 감긴다
そっと目を閉じる

얼굴에 비누칠을 하고 면도를 시작하면
顔に、石けんを付け髭剃りを始めれば

아예 졸음이 쏟아진다
最初から眠気が降り注ぐ

여기서 이렇게 한 숨 꼭 자고 싶다
ここで、こんなに一息にぐっすり眠りたいと思う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을
人生が疲れることを

이발소 의자에 앉으면 알 수 있다
理髪店の椅子に座ればわかることができる

- 전종문의 《청명한 날의 기억 하나》 중에서 -
- チョン・ジョンムの〈晴天の日の記憶一つ〉より -

* 새해도 많이 바쁘게들 사시겠지요.
* 新年もたくさん忙しく生きるでしょう

비록 침실은 있어도 잠 잘 시간들이 없고
たとえ寝室はあっても、ちゃんと寝る時間はなく

휴식 공간은 있어도 쉴 시간들이 없습니다.
きゅそく空間はあっても、休む時間がありません

자영업자나 직장인이나 주부나 학생들까지
自営業者や、会社員や、主婦や、学生まで

20150103.txt

TV 시청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 시간을 빼앗겨
テレビ視聴とコンピューターとスマホなどに時間を奪われ

쉼 틈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休む暇がありません。休む時間がなければ免疫力が落ち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体と心が難しくなります。いくら忙しくても

이따금 시간을 내어 이발소 의자 같은
時々時間を割いて、理髪店の椅子のような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
一番平安な場所に座って

쉬어야 합니다.
休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씩둑

[부사] 柔らかいものを一気に切るさま[音]: ちょきん; すぱっと; ...

샤르르

[부사]

(풀어지다·떨어지다) 結び目やぶらさがっているものが自然...

(녹다) 氷や雪が自然に溶けるさま: そろりと.

(눈을 감다·뜨다) (眠くて, または力が抜けて) 目を静...

비누칠 (一漆)

[명사] せっけんをつけること.

아예

[부사]

初めから; てんで; 頭から全く.

絶対に; 決して.

せいてんのひ [晴天の日]

청명한 날.

휴식 (休息)

[명사] 休息; 休み.

自営業者 발음 재생

자영업자

이따금

[부사] 時々; 時たま; 時折; 折折; ちょいちょい; よ...